

〈흥글소리〉에 대한 一考

-〈흥글소리〉에 나타난 탄식을 통해 본 여성의 자기탐색적 태도-

이정아*

— <차 례> —

1. <흥글소리〉에 주목하는 이유
2. <흥글소리〉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
3. <흥글소리〉에 나타난 탄식을 통해 본 여성의식
 - 3-1. ‘딸’로서의 정체성과 정서적 의존의식
 - 3-2. 유년에 대한 기억과 소외의식
 - 3-3.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의식
4. <흥글소리〉의 자기탐색적 태도와 그 의미

〈국문초록〉

이 논의는 <흥글소리〉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을 통해 포착되는 여성의식- 딸로서의 정체성과 의존의식, 유년에 대한 기억과 소외의식, 불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의식-을 추출함으로써 <흥글소리〉가 노정하고 있는 자기탐색적 태도와 그 의미를 구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흥글소리〉를 통해 반복되고 있는 탄식은 친정부모와의 정서적 소통이 결핍된 상태에서 출발한다. 이 노래 속 탄식은 가부장제 사회에 귀속된 나이 어린 평민 혹은 하층민 여성의 원치 않는 결혼-친정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낯선 환경으로 시집가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 유년시절 가지고 있었던 친정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의존의식은 결혼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게 만든다. 이 고립과 단절의 시공간에서 여성은 소외의식을 갖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불행한 현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자의식을 말하고 있다.

<흥글소리〉는 탄식의 말을 반복하고 확장하면서 회복해야 할 본래의 자기 삶,

* 가천대학교 글로벌교양학부 초빙교수

전복해야 할 현실을 전달하고 있다. 탄식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삶을 촉구했다. <홍글소리>를 통해 노정되는 여성 의식은 자기탐색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탐색적 태도가 바로 자기 삶의 지향성을 모색하고자 했던 자각이자 자기회복의 치유적 욕망을 잘 말해준다.

주제어 <홍글소리>, 여성 의식, 신세한탄, 탄식, 여성적 텍스트, 의존 의식, 소외 의식, 자의식, 자기부정, 자기탐색, 자기탐색적 태도, 시집살이 노래, <어사옹>, 규방가사

1. <홍글소리>에 주목하는 이유

<홍글소리>는 말 그대로 흥얼거리는 소리다.¹⁾ 전라도 지역 여성들이 주로 부르던 <홍글소리>에는 결혼한 여성들의 신세한탄이 담겨 있다. 이 신세한탄, 탄식의 말들은 동어반복처럼 단조롭게 보인다. 그러나 쏟아지는 말의 틈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어화되지 못한 굴곡 많은 개인의 생애와 그에 대한 인지적 반응 및 감정들이 발견된다.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타자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내적 반응을 드러내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양상이 포착된다.²⁾

그동안의 <홍글소리>에 대한 연구는 음악적 형식과 성격 및 특징을 다룬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물론 여성적 말하기의 대표적인 양상으로 <홍글소리>를 다룬 논의³⁾가 있지만 <홍글소리>만을 대상으로 한 본격

1) 김혜정, 『전남지역 홍글소리의 음악적 구조와 의미』, 『한국음악연구』 제24집, 79면

2)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 구연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여성 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69-70면, 96-103면. 이정아는 이것을 혼재된 감정과 자의식의 개입으로 설명하면서 창자의 심리적 동요를 반영하는 의식적 무의적 혼재이라고 말하고 있다.

3) 강진옥, 『여성민요 창자 정영엽 연구』, 『구비문학연구』7, 한국구비문학회, 1998,

적인 논의라고는 할 수 없다.

<홍글소리>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노래가 결혼한 여성들이 사적 공간에 불렀던 은밀한 노래로 그 어떤 노래보다도 생생한 삶의 정황을 함축한 텍스트라는 데 있다. 노랫말은 일정한 패턴의 공식구로 반복되지만 그 속에는 부르는 창자의 삶이 투영되고 있다. 창자의 자전적 삶은 공식적 표현에 겹쳐지기도 하고 일상적 어법으로 노랫말 중간에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화자의 시점이 착종되는 현상을 통해서도 나타난다.⁴⁾ 노래하는 창자가 노랫말 속 화자와 일치하였다가 분리되는 현상 혹은 다른 서술자의 목소리로 전환하는 현상이 그러한 징후다. 하나가 아닌 시선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재현되는 듯 보이는 착종의 지점에서 불분명한 의식의 경계와 그 넘나듦의 징후가 포착된다.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지점에서 화자의 목소리는 창자와 일치, 불일치를 오가며 혹은 이질적 감정을 동시에 분출하며 텍스트에 긴장과 균열을 주기도 한다.⁵⁾

한편 <홍글소리>가 표출하고 있는 감정적 반응을 살펴보면 화자를 둘러싼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의식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노래를 통해 표출되는 감정⁶⁾은 지속적으로 화자 혹은 창자가 가져온 성향적 감정으로 주로 탄식을 통해 표출되고 있다. 감정은 주체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구성하는 내면적인 서사인 동시에 주체가 자기 성찰을 수행하는 방

187-202면.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 구연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여성 의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184면.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와 말하기 욕망』, 혜안, 2010, 1-348면.

4) 이정아, 위의 논문, 96-103면.

5) 이정아(2010), 위의 책, 163-175면.

6) 김혜련은 장기간에 걸쳐 주체가 갖는 성향적 감정이 기억에 의해 현재화되어 감정서사의 양태로 경험되고 주체의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혜련, 『서서 담론으로서의 가족애』, 『한국여성철학』 제7권, 2007, 59-87면.

식⁷⁾이라고 볼 때 <홍글소리>가 담고 있는 감정들이야말로 진정한 여성적 자아와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가치를 담보한다.

그래서 <홍글소리>는 여성생애담과 같은 자전적 서사의 서사적 담론화 과정이 수반하는 인지적 과정을 저층으로 하면서 주체가 지속적으로 형성해 온 성향적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⁸⁾ 그 감정 표현의 방식을 통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살아야 할 날들을 생각하는 자기탐색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도 보인다. 이 점이 <홍글소리>가 갖는 고유한 여성적 텍스트로서의 가치이다.

최근 여성 생애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여성 생애담이 가지는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와 의미, 여성 구술의 문학적 가치와 의미에 천착한 연구가 다방면에서 이루어졌다.⁹⁾ 이를 통해 여성 생애담이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의미와 문학적 특징 등이 구명되었고 여성이 재현해내는 자기 서사화의 방식과 양상들이 문학적으로 혹은 사회학적, 역사학적으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가는 고찰하였다. 이는 여성 담론이 기존 담론에서 홀대 받아온 차별적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가치 회복의

7) 김혜련, 『감성서사에 기반한 여성 주체 형성』, 『미학』 제 42집, 2005년 6월, 1-29면.

8) 김혜련은 남성 주체가 반성적 이성과 방법을 통해 주체를 형성해나간다면 여성 주체는 감정과 스타일을 통해 주체를 형성해나간다고 하면서 감정이 주체가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해 구성하는 내면적인 서사로 주체가 자기 성찰을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언급하였다. 김혜련, 『감성서사에 기반한 여성 주체 형성』, 『미학』 제 42집, 2005년 6월, 1-29면.

9) 구비문학연구 32집에서는 시집살이담의 존재양상과 문학적 역사적 성격이라는 특집논문을 실고 있다. 신동훈, 『시집살이담 담화적 특성과 의의』, 최원오, 『여성생애담의 이야기화 과정, 그 가능성과 한계』, 서영숙, 『시집살이 이야기와 시집살이 노래의 비교』, 박경열, 『시집살이담의 갈등양상과 갈등의 수용방식을 통해 본 시집살이의 의미』, 윤택림, 『여성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김정경,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화 방식 연구』, 김종근, 『가족사 서사로서 시집살이담의 성격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32집, 한국구비문학회, 2011.6.30, 1-180면.

노력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자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은 <홍글소리>라는 정서적 표현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여성의식과 태도이다. 인지적 사고 혹은 인과적 관계를 통해 재현되는 서사적 사건은 필연적으로 자신이 속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으로 내면화할 수밖에 없다. 기존 장르 관습이 요구하는 서사적 억압의 과정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아닌 노래는 다를 수 있다. 서사적 당위 이전에 선행하는 내적 감정 혹은 욕망이 주축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¹⁰⁾ <홍글소리>는 탄식이라는 감정 표출을 통해 내재된 서사¹¹⁾를 표현하는 자기 서사적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홍글소리>에 나타나는 탄식의 양상을 통해 화자 의식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노정되는 자기탐색적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통사회 여성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외되고 억압받았던 시절 즉 갓 시집온 며느리 시절의 경험을 지내온 여성이 향유한 <홍글소리>는 딸로서의 여성이 며느리로서 적응하기 위해 겪는 침예한 갈등

10) 이러한 논의는 서영숙의 『충북여성민요의 정서 표현양상과 현실인식』과 유목화의 『여성민요에 나타난 감성의 발현양상과 치유방식』에서도 다룬 바 있다. 서영숙, 『충북 여성 민요의 정서 표현 양상과 현실의식』, 『한국민요학』 제22집, 165-198면, 한국민요학회, 2008, 유목화, 『여성민요에 나타난 감성의 발현양상과 치유방식』, 『공연문화연구』 제20집, 2010.2, 161-194면.

11) 박혜숙은 여성자기서사의 텍스트를 통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여성적 정체성은 지배적인 관습이나 규범과 어떻게 타협하거나 갈등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박혜숙, 『여성과 자기서사』, 『한국여성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멸출판, 2008, 217-240면. 자기서사에 대한 개념은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239-271면,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한국여성문학연구』 7, 한국여성문학회, 2002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그는 감정이나 정서적 표현에 초점에 맞추어진 것은 자기서사라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본고는 김혜련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는 입장에서 자기서사의 개념을 원용해 보았다.

이 진솔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래 속에는 살아온 날에 대한 회고뿐만이 아니라 살아갈 날에 대한 미래적 전망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의식이 엿보인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노래를 향유한 여성들이 표출했던 그 많던 자기부정의 탄식들이 오히려 자기탐색의 시도이자 몸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논의 방법은 감정적 언표화를 통해 보이는 의식의 증후를 탐색하는 방식이다. 텍스트 전면에 자리하고 있는 화자의 감정토로와 그 심리적 배경에 자리한 사건들을 유추하여 여성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홍글소리>가 취하고 있는 탄식은 여성적 텍스트가 보이는 중요한 언표화의 방법 가운데 하나다. 전형적이고 반복적으로 구현되는 패턴 속에는 말로 언표화하지 못한 서사적 정황과 그로 인해 생겨난 감정들이 함축되어 있다.¹²⁾

이를 위해 『한국구비문학대계』¹³⁾,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 해설집』¹⁴⁾와 김혜정의 『여성민요의 음악적 존재 양상과 전승원리』 자료편¹⁵⁾에 수

12) 이러한 전통적 여성 텍스트의 특수한 언표적 징후들은 이데올로기적 담론이 담아낼 수 없었던 그들만의 말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타자적 표현방식이었다.

1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4-6 729-730면, 6-1 242-243면, 6-1 243-244면, 6-1 245-246면, 6-1 726-727면, 6-12 330-331면, 6-4 957-958면, 7-9 628-630면, 7-9 798-799면 이상 9편.

14) 한국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해설집』, 129면, 131면, 132면, 195면, 360면, 361면에 수록된 6편.

15) 김혜정, 『여성민요의 음악적 존재 양상과 전승원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87면, 고흥 신세타령1, 정영엽(여 1929) 고흥군 도양읍 관리 관하; 위 논문, 90면, 홍글소리2, 김미덕(여 1918) 고흥 도양읍 용정리 장애; 위 논문, 91면, 고흥홍글소리, 김양심(여 1928) 고흥군 도야읍 용정리 장애; 위 논문, 92면, 곡성 홍글소리 김정숙(1918 여) 곡성군 석곡면 죽산리; 위 논문 95면, 나도야 클적에는, 김덕남(여 1921) 광양군 봉강면 지곡리 지살; 위 논문, 96면, 광양신세타령, 유두례(여 1924) 광양군 진상면 섬거리; 위 논문 97면, 무안 발매는 소리 김순례(여 1908) 무안군 청계면 서호리 서호정; 위 논문, 97면, 보성 시집살이 노래3, 주원림(여 1921) 보성

록된 <흥글소리>를 주된 대상 자료로 삼아 논의를 전개해나가기로 한다.

2. <흥글소리>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

<흥글소리>에는 ‘어머어매 우리어매 뭇할라고~~’라는 친정어머니를 원망하는 표현이 중요한 반복구로 등장한다. 친정어머니에게 ‘왜 나를 낳았는가’, ‘친정에서는 고생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 ‘시집을 와보니 남편이 못나서 못살겠다’, ‘나만 혼자 남처럼 살아야 하는 시집살이 때문에 못살겠다’, ‘죽도록 하루 종일 일만 해야 하는 신세를 못 견디겠다’ 등 자신의 살아오면서 겪었던 삶의 정황과 기억에 남는 사건들을 탄식의 화법과 공식적 관용구 “어매어매 우리어매 뭇할라고~~”를 통해 반복하고 확장하고 있다.

동어반복처럼 보이는 이 탄식 혹은 신세한탄의 말들은 창자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¹⁶⁾ 그것을 표현해내는 방식은 일정하게 전형화되고 있다. 전형화된 노래를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어리고 미숙한 여성이 겪어온 삶과 문제적 사건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어매어매 울어매야/ 조선없는 나를키워/ 딸하나 외동딸/ 삼대만에 왜동
딸하나/ 날키워 왜이라노/ 시집살이 말도많고 승도많고/ 어매어매 울어매

군 조성면 덕산리 감동; 위 논문, 101면, 승주신세타령, 김창엽 (여) 승주군 해룡면 신월리; 위 논문, 103면, 신안신세타령1 김상남 (여 1920) 신안군 자은면 송산리; 위 논문, 105면, 신안신세타령 2 박복엽 (여 1926) 시안군 흑산면 수리; 위 논문, 107-108면, 장충 신세타령, 김정심 (여 1917) 장흥군 장흥읍; 위 논문, 109면, 진도물레타령, 최소심 (여 1908-1992) 진도군 군내면 세등리 장안; 위 논문 자료편, 111면, 해남 흥글소리, 김해님 (여 1926) 해남군 산이면 금호도 이상 13편.

16) 노래는 참말이라는 구연 현장의 제보자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야/ 내고생하는줄을 위애아노/ 날뫼때문에 용천동네보내가주/ 요고상도
내하노¹⁷⁾

외동딸로 키운 자신을 낯선 시집 용천동네에 보내어 이 고생을 시키느냐
는 회한과 원망의 노랫말에는 개인의 서사가 함축되어 있다. ‘어매어매 울어
매는’이라는 관용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어지는 노랫말에
는 창자의 개인적인 삶- 외동딸로 태어나 조선에 없는 귀한 자식처럼 자랐
는데 동네 용천에 시집와서 고생을 하고 있다-이 직접적으로 투영되고 있다.
이렇게 창자의 사적인 개인사가 투영되기 쉬운 노래가 <홍글소리>다. 자주
투영되는 그 귀한 딸로 자라 시집와서 고생했다는 그 사적 경험은 시집
온 여성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
지만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경험, 같은 며느리 시절을 살아낸 여성들에게 강한
공감을 형성했던 노래가 바로 <홍글소리>였다.

사적이지만 누구나 공감했던 그 노래는 대부분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말하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꾸밈없이 직설적인 탄식의 화법 때문에
어딘지 진부하고 식상한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신세한탄일 뿐이라 평가되
기도 했고 다른 문학에 비해 저급한 언어적 형상화의 꼴을 갖춘 저급한
텍스트라 폄하되기도 했다. 그러나 <홍글소리>를 타고 흘러나오는 탄식
은 동어반복 이상의 의미를 형성해나가고 있다. 논의를 통해 살펴보게 될
자료들은 바로 그 동어반복 이 단순한 반복 이상의 의미를 형성해나가고
있음을 설명해 줄 것이다.

(가) 어매어매 울어매는/ 뫼할라고 날났는가/ 날날적에 아릿바다 밋국속
에다/ 옥시겔은 쌀밥에다/ 날났건마는/ 요내나는 웨이란당가/ 날키올때 뵈

17) 『한국구비문학대계』, 7-9, 798-799면.

이들면 놀랜다고/ 반만들어서 날키웠건마는/ 내신세냄내팔자가/ 왜이리된
가/ 우리엄마 뿔할라고도 날낭든가¹⁸⁾

자료 (가)는 친정어머니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는가 묻고 있다. 이러한 물음을 만들어낸 단초는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난다. ‘내신세냄내팔자/왜이리된가’현재 자신의 신세와 팔자에 대한 현실인식이 나를 낳은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향하고 있다. 이 텍스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뿔하려고 나를 낳는가’라는 물음이 함축하는 의미이다. 미역국과 쌀밥으로 대변되는 친정에서의 유복한 삶, 애지중지 대접을 받던 나, 그런 내가 현재 왜 이런 팔자가 되었는가, 왜 엄마는 나를 낳아서 고작 이렇게 살게 만들었는가를 묻는 화자는 현재 자신이 겪는 불행은 원인은 스스로 원치 않았던 ‘태어남’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친정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사건, 그 탄생의 순간을 부정하고 싶다고 말한다. 아니 탄생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현재의 삶이 살기 힘들다고 탄식한다. 바로 이 태어남을 부정하고 싶다는 탄식이 <홍글소리>가 첫 번째로 던지는 생에 대한 질문이다.

(나) 어매어매 우리어매/ 뿔을하자고 나를나서/ 날심을데도 썩건마는/ 이
런촌에 나를여워/ 농사짓고 못살겼소/ 어매어매 날테려가시오/ 이내나는 못
살겼소/ 아이고아이고 내팔자야/ 놈시상 산테보고/ 요내 시상 산테를보면은
/ 없든심정 절로나네/ 어떤사람은 팔자가좋아서/ 자석좋아 자석자랑/ 재산
좋아 재산 자랑/ 고대광실 높은집에/ 부귀영화로 잘사는디/ 이내나는 어디
갔다/ 남탄복력을 못타서/ 내신세가 이리될줄/ 어느귀신이나 내속을 알랴/
땅이나 내속알란가/ 하나님이나 내속알란가/ 나는 못살겼네/ 어매어매 우리
어매/ 날 데려가시오/ 시상에도 못살겼고/ 날만종디로 데려를 가시오¹⁹⁾

18)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민요해설집』, 131면.

19) 위의 책, 360면.

자료 (나)의 경우 친정어머니는 왜 나를 나서 이런 촌에다가 나를 두고 가버려서 고된 농사를 짓고 살게 했는지 못 살겠다고 말하고 있다. 노래 속에 나타난 서사적 정황은 ‘친정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시켰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힘든 농사를 짓게 되었다, 결혼 이후의 삶은 모두 불행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자식 재산 부귀를 누리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니 귀신이나 내속을 알까 하나님이나 내속을 알까,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으니 나를 저 세상으로 데려 가 달라’이다. 화자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탄생의 순간부터 이어지는 불행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런 촌에 힘겹게 고된 농사를 짓고 있다,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부귀영화 누리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내 속을 누가 알까’ 원망은 끝이 없다. 자기 불행의 출발점이 원치 않은 삶을 살게 한 친정어머니의 출산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자신에게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한다. 친정어머니를 부르며 자신을 데려가 달라 애원하듯 탄식하고 있다.²⁰⁾ 탄생에 대한 부정과 불행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식이 담겨 있다.

(다) 어매어매 우리어매/뭇을할라 나를넣어/ 내뭇할일을 시키는가/날나 시에나도넣고/ 나난시에 남도나넣건만/어이하여어 이지경이런가/ 어떤사람은 팔자가좋아서/ 고대광실 높은집에 책상우계 /책을놓고 급공부를 다하는데/ 요내나는 하도하도 할일이없어/ 이만한중사를 나를시켰든가²¹⁾

자료 (다)는 ‘왜 나를 넣어서 못할 일을 하게 만들었는가, 고대광실에서 공부하는 사람과 달리 왜 나를 힘든 일을 하는 처지로 만들었는가’라고

20) 이 자료는 특별히 창자의 생각과 감정이 노래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자전적 생애를 함축하고 있다.

21) 위의 책, 361면.

탄식하고 있다. 자료 (나)에서도 보이는 공식적 표현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에서 글공부하는데 나는 일만하는 신세’라는 원망도 이어지고 있다.²²⁾ 태어남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만 이미 거부할 수 없는 운명적 굴레는 어찌 할 수 없다는 약자의 탄식²³⁾이 담겨 있다.

(라) 어매어매 울어매는/ 뿔을뚫고 날났든가/ 날날라든 잘났거나/ 못말라든 못났거나/ 어중간이 나를 나서/ 세상살기가 곤곤하네/ 어매어매 날데려가소/암만해도 못살겠네/ 밤보따리 옆구리에 찌고/ 질로질로 나설라네/ 어느누가 날찾을께/ 못살겠네 못살겠네/ 이놈의세상 못살겠네/ 암만해도 못살겠네²⁴⁾

자료 (라)는 ‘어중간하게 나를 낳아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가, 도저히 살 수 없어 보따리 싸들고 나가고 싶다, 세상 살기 곤곤하여 못살겠으니 데려가 달라, 보따리 싸들고 길을 나가고 싶다’ 등 구체적 의지가 나타나는 자료이다. 불행으로 점철되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화자의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료 (가), (나), (다), (라)는 친정어머니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낳았느냐’는 태어남에 자체에 대한 원망으로 시작한다. 이를 통해 현재 화자 자신이 처한 현재적 삶의 불행과 고통을 말하고 있다. 원치 않았던 삶을 살아야 했던 화자가 살아온 날들을 터뜨리는 항변이자 탄식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탄식의 말들에는 불행의 구체적 사건이나 불행하게 만든 이들의 구체적인 행위는 생생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그저 왜 나를 낳았느냐, 왜

22) 이러한 표현은 <어사용>에 자주 등장하는 신세한탄의 공식적 표현이다.
23) 이정아, 『어사용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문연구』18, 한국고전문연구회, 2008, 321-350면.
24) 위의 책, 132면.

시집을 보냈느냐, 원수 같은 남편 정도의 탄식으로 대신할 뿐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화자가 겪어왔던 말 못할 사연이 담겨있다. 그 모진 세월을 돌이켜보면 소설책 몇 권으로도 다 담지 못할 만큼 절절한 사연들이 쌓여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구구절절한 삶은 “어매어매 우리어매~”라는 탄식으로 대신될 뿐이다. 탄식으로 함축된 자기 생을 반추하는 노래 그래서 <홍글소리>는 ‘탄식으로 대신한 자기서사’라 할 수 있다.²⁵⁾

한편 <홍글소리> 자료 가운데는 앞서 살펴 네 편의 자료와 달리 ‘왜 날 낳았느냐는 원망이 아니라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부터 출발하는 노래도 있다.

(마) 울어매는 날키울때/ 금만남만 예우드만/어매어매 날날라말고/ 칠월 삼베나 한필더웠으면/ 몽당치매를 못미들걸/ 한살두살 목을때는/ 놓안줄듯이 하드마는/ 열에다섯이목어논께/ 넘주자고공사하네/ 못살겠네 못살겠네/ 열에다섯 만난가장/ 백년원수를 만나갖고/ 날베려라 날베려라/ 대쪽같이 끈은길에/ 살대쫓듯 나나나감세²⁶⁾

자료 (마)는 친정에서의 행복했던 유년의 기억으로 시작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유년의 기억은 오래가지 않는다. 다시 원치 않은 결혼을 해야 했던 기억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두 살 때는 남 안줄 것 같이 하더니 열다섯에 남에게 주어 백년원수와 살게 되었다’는 대목이 그것을 말해준다. 자신을 ‘금만남만 예우’며 길렀던 친정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남에게 주자고 공사하여’ 자신을 ‘백년원수’로 지칭되는 남편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다. 금이야 옥이야 떠받들면서 자신을 기르던 부모가 열다섯 살 되

25) 이러한 탄식의 자기서사는 여성생애담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천혜숙은 농촌여성생애담에서 나타나는 문학담론적 특징으로 이러한 전형성을 지적한 바 있다.

26) 김혜정(2003), 앞의 논문, 101면.

던 해 남 주듯 시집보낸 사건, 그렇게 해서 백년원수 남편을 만나 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날베려라 날베려라’ 현재의 삶에 대해 항변하고 저항하고 있다. 탄생 자체에 대한 원망이나 부정의식은 발견되지 않지만 친정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실감과 이후 찾아왔던 불행한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백년 원수로 지칭되는 남편은 바로 그 증표이다. 남 주듯 넘겨진 여성은 낯선 환경에서 두렵고 외로웠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여성 누구나 공감했던 시집살이였다. 그 두렵고 외로웠던 경험이 그 많은 <홍글소리>가 모두 같은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는 의미있는 사건이다.

(바) 엄매엄매 우리엄매/ 뭣할라고 날벨적에/ 토란노물 줄겼든가/ 돌아갈수록 더서럽네/ 엄매엄매 우리엄매/ 뭣할라고 날벨적에/ 가지노물 줄겼던가 / 갖가지로 더서럽네/ 논에가른 가래원수/ 밭에가른 바라구원수/ 집이들든 시누엔수/ 시운수를 잡아다가/ 미당가운데 눕혀놓고/ 영전한 하나님네/ 배락이나 때립소사... 이하생략²⁷⁾

(사) 엄매엄매 우리엄매/ 식기에다 밥을담고/ 양편에다 국을떠서/ 닭고기는 짹짹하고/ 송애피기 늑늑하고/ 못살것네 못살것네/ 아무리해도 못살것네 / 가란다요 가란다요/ 밭을매러 가란다요/ 불과같이 나는별에/ 뭣과같이 지운밭에/ 밭한골을 매고나니/ 삼시골차 거듬맨께/ 작게맸다고 기결하니/ 이노릇을 못살것네²⁸⁾

(아) 어매어매 우리어매 / 뭣할라고 나를나서/ 날이런데 여왔는가/ 울어머니 날쓸때는/ 온갖노물이 다쌌는다/ 곰곰초를 원했든가/ 곰곰초를 원했든

27) 김혜정(2003), 위의 논문, 109면.

28) 김혜정(2003), 위의 논문, 111면.

가/ 곱곰삼삼 생각하믄/ 아무래도 못살겠네/ 어매어매 울어매가 날쓸때나/
 시어머니 딸쓸때나/ 나무쟁반에 다물실은 듯이/ 반반질러 생각하믄/ 어떤사
 람이 시집을못살까/ 어매어매 우리어매/ 요내나를 데려가소/ 임아임아 어린
 임마/ 한이불속에서 잠을자도/ 이내속을 몰라주네/ 임아임아 정들었다고정
 옛말마소 / 이별수들면은 할말이다없이하네/ 어매어매우리어매/ 날심을디
 그리었어/ 석산비럭 끝에 날심어서/ 뿌리발이못해서 못살겠네/ 어매어매 우
 리어매/ 살다살다 정못살믄/ 깡고깡고 머리를깡고/ 중에행실이나 나가볼게/
 어매어매 우리어매 / 말만남은 행개치매/ 집만남은 행개적삼/ 집만잡어 털
 어입고/ 말만잡어 털어입고/ 반보따리 손에들고/ 지척없이 나는가네/ 어매
 어매 우리어매/ 나산시상 불라거든/ 요내방에 들어가서/ 말만남은행개치매/
 집만남은 행개적삼/ 농틈에다 찢라쳐서/ 그놈보고 나를보소/ 어매어매 우리
 어매²⁹⁾

자료 (바),(사),(아) 모두 시집살이에 대한 탄식을 담고 있다. 자료(바)에 등장하는 “논에 가른 가래원수/ 밭에 가른 바라구웬수/ 집이들든 시누엔수/ 시운수를 잡아다가/ 미당가운데 눕혀놓고/영천한 하나님네 배락이나 때립소사”와 같은 표현은 시집살이에 대한 화자 감정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시집살이를 하며 느끼는 화자의 분노가 담긴 이 부분의 노랫말은 시집살이 노래의 <세원수>와 유사하다. 며느리라면 대개가 공감하는 <세원수>의 노랫말을 삽입하여 시집살이에 바라보는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자료(사) 역시 “밭을 매러가란다요/ 불과같이 나는 별에/ 뫏과같이 지운밭에/ 밭한골을 매고나니/ 삼시골차 거듭맨게/ 작게됐다고 기걸하니/ 이노릇을 못살겠네” <중이 된 며느리>의 일부를 차용하여 시집살이에 직면한 화자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적절하게 대신하게 하고 있다.

29)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민요해설집』, 129면.

자료(아)도 “어매어매 우리어매/ 살다살다 정못살믄/ 깡고깡고 머리를 깡고/ 중에행실이나 나가볼게/ 어매어매 우리어매 말만남은 행개치매/ 집 만남은 행개적삼/ 집만잡어 털어입고/ 말만잡어 털어입고/ 반보파리 손에 들고/ 지척없이 나는가네” 와 같이 <중이 된 며느리>의 주요 모티프를 삽입하여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 자료 (바),(사),(아)는 모두 시집살이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 감정전달의 방식으로 기존 시집살이 노래의 관용적 표현이나 서사적 모티프를 차용하고 있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로 시집살이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³⁰⁾

특히 자료 (아)와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보았던 자료들이 보여주었던 모든 탄식의 내용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뭣할라고 나를 나서 날 이런데 여왔는가’로 시작하고 있는 탄식은 ‘임아임아 어린임아 한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이 내 속을 몰라주네’ 라는 무심한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다가 ‘살다 살다 정 못살면 머리를 깡고 중의 행실이나 해 볼 수 없지 않겠느냐’는 시집살이에 저항의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부분의 <흥글소리>는 친정어머니를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원망과 탄식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현재 이곳에 부재하는 친정어머니를 향해 부르는 탄식의 말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원통함을 털어놓기 위한 신호이다. 그 탄식을 통해 내게 찾아온 이유 없는 불행에 대한 원망, 원치 않았던 결혼이 가져다준 피

30) 허구적 상황 혹은 서사적 모티프를 차용하여 자신이 겪어낸 시집살이를 말한다. 이 점에서 노래를 혹시라도 듣게 될 누군가에게 감정적 공감을 촉구하는 부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내 이야기지만 남들이 공감하는 공식적 표현을 취함으로써 노래가 요구하는 장르적 규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노래를 공유하게 될 누군가에게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했던 자의식이 포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폐한 삶에 대한 억울함과 저항감, 친정부모와의 무정한 이별에 대한 섭섭함, 시집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며 겪었던 두려움과 외로움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탄식은 상실과 상처, 부정의 말이 되어 살아온 생을 돌아보게 만든다. 바로 이 탄식의 과정에서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고 살아야 할 날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자기탐색적 태도가 자연스럽게 노정되고 있다. 신세한탄, 반복적인 탄식을 통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고 살아갈 날들을 생각하는 자기탐색의 몸짓들이 투영되고 있다.

3. <홍글소리>에 나타난 탄식을 통해 본 여성의식

<홍글소리>가 조합하고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은 아래와 같다.

- 1) 어린 시절은 친정어머니와 살았다.
- 2) 친정부모가 시집을 보냈다.
- 3) 무심한(못난) 남편을 만나서 불행했다.
- 4) 고된 노동을 했다. 혹은 시집살이를 했다.
- 5) 현재 나는 불행하다.

1)번과 2)번, 5)번은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어린 시절은 친정어머니와 살았다→ 친정부모가 시집을 보냈다→ 현재 나는 불행하다’ 3),4)는 선택적으로 조합되는 사건이다. 이들의 선택과 조합에 따라 노래 부르는 화자가 인식하는 불행한 기억의 우선순위를 짐작할 수 있다.

<홍글소리>가 말하고 있는 최초의 시간은 친정어머니와 같이 살았던 시절이다. 대부분 친정어머니를 ‘엄마’라 부르던 시절에 대한 기억으로부

터 노래는 시작된다. 그러나 노래 속 화자는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는 대신 ‘왜 날 낳았는가’라 원망할 뿐이다.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은 삼키면서 지금 내가 겪는 불행을 탄식한다. 내가 처한 불행은 나를 낳은 어머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친정어머니를 부르면서 살아 온 날들을 반추하고 있는 화자의 기억에는 도무지 행복했던 기억이나 순간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노래 속 화자는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었을까? 노랫말처럼 자기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전망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일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여성의식에 대한 탐색은 시작된다.

3-1. ‘딸’ 로서의 정체성과 정서적 의존의식³¹⁾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대로 <홍글소리>의 첫 대목은 화자가 엄마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한다.

‘어매어매 울어매는/ 뭇할라고 낳났는가’
 ‘어매어매 우리어매/ 뭇을하자고 나를 나서’
 ‘어매어매 우리어매/ 뭇을할라 나를낳어’
 ‘어매어매 울어매는/ 뭇을묵고 낳났든가’
 ‘엄매엄매 우리 엄매/ 뭇할라고 날벨적에’
 ‘어매어매 우리어매 /뭇할라고 나를나서’

‘어매어매 울어매’로 시작하는 부름의 말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

31) 의존의식이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존하면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의식 상태를 지칭한다.

의존의식을 나타낸다. 그 의존의식은 어린 시절 화자가 가졌던 가장 자연스러운 감정이었다. <홍글소리>는 바로 그 어린 시절의 심정이 되어 부르는 노래이다. 따라서 ‘어매어매 울어매’라는 관용적 어구는 이 노래를 불렀던 여성들이 심리적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해 준다. 노래를 부르는 화자는 그 순간 친정어머니를 엄마라 불렀던 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뫓할라고 나를나서’는 바로 그 회귀하고 싶은 딸로서의 자신이 이미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딸’의 시절로 되돌아가서 불러보고 싶은 ‘엄마’라는 외침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왜 낳았느냐’라는 원망이다. 아이처럼 응석 부리며 속내를 털어놓고 싶은 의존의식은 왜 낳았느냐라는 원망으로 대신되고 있다. 그것은 회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인식이며 회복 불가능한 정서적 연대감 혹은 정서적 소통에 대한 섭섭함이자 미련이기도 하다. 그러나 화자는 여전히 딸 시절의 정서적 의존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유로 그저 친정어머니에게는 원망과 섭섭함을 토로할 뿐이다.

한편 ‘어매어매 울어매’라는 친정어머니에 대한 부름의 말은 현재 단절된 화자의 시공간을 말해 주기도 한다. 시집에 고립되어 있는 화자의 단절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이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어매어매 울어매’는 더 외롭고 서글프다는 외침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어지는 ‘뫓할라고 낳았는가’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홍글소리>에 나타나는 정서적 의존의식과 대비되는 것은 바로 <어사용>의 운명론적 세계관과 고독감이다. 남성 하층민의 노래 <어사용>의 탄식을 통해 발견 할 수 있는 것은 거대한 운명 혹은 자연 앞에 선 절대고독의 자아이다. 그 자연의 공간에서 단절되고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고 있다.³²⁾ 그러나 <홍글소리>는 낯선 타지, 시집의 공간에서 친정어머니를 부르며 탄식하고 있다. 여성이 부르는 친정어머니에 대한 부름은 정서적 공감과 위로가 결핍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관계로부터의 단절, 그 단절에 대한 섭섭함과 서러움, 원망이 노랫말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홍글소리>의 탄식을 통해 유추해낼 수 있는 정서적 의존의식의 단서이다.

3-2. 유년에 대한 기억과 소의의식

‘어매어매 울어매’라는 정서적 의존의식으로 시작되는 유년의 기억은 아래와 같이 표현되고 있다.

‘날날적에 아릿바다 밋국속에다/ 옥시겔은 쌀밥에다/ 날났건마는/ 요내나
 는 왜이랑당가/ 날키울때 뉘이들면 놀랜다고/ 반만들어서 날키웠건마는’
 ‘날심음데도 췌건마는/ 이런촌에 나를여워/ 농사짓고 못살졌소’
 ‘날날라른 잘낭거나/ 못말라른 못낭거나/ 어중간이 나를나서/ 세상살기가
 곤곤하네’
 ‘울어매는 날키울때/ 금만남만 예우드만/어매어매 날날라말고/ 칠월삼배
 나 한필더났으은/ 몽당치매를 못미들걸/ 한살두살 목을때는/ 놈안줄 듯이
 하드마는’
 ‘뫼할라고 날 벨적에/ 토란노물 줄겼든가/ 돌아갈수록 더서럽네’
 ‘울어머니 날슬때는/ 온갖노물이 다했는디/ 곰곰초를 원했든가/ 곰곰초를
 원했든가’

<홍글소리>는 친정어머니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유년시절을 떠올린

32) 이정아, 『어사옹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문학 연구』 18집, 한국고전문학 연구회, 341면.

다. 유년에 대한 기억은 화자마다 다르다. 애지중지 나를 극진하게 여겼던 행복한 시절이기도 하고 나를 여전히 서럽고 섭섭하게 만들었던 불행한 시절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년의 기억은 잠시 바람을 스치듯 지나갈 뿐이다. 노랫말에는 유년시절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자신을 남 주듯 그렇게 시집보냈던 정황 혹은 사건이다. ‘이런촌에 나를여워’, ‘놈안줄듯이하드마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유년과 대비되는 사건의 충격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촌에 나를여워’ 혹은 ‘놈안줄듯이 하드마는’이라는 함축적 표현 속에는 수많은 사연이 담겨있다. 어떤 사연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는지, 친정부모와 어떻게 이별했는지, 어떻게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살았는지 숨겨진 말들이 많다. 그러나 그저 한두 마디의 탄식으로 그 단절과 고립의 의미있는 사건들은 생략되고 있다.

이런 식의 침묵과 생략은 여성적 말하기의 특징이다.³³⁾ 여성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주체의 말을 통해 자신들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익숙해져왔다. 그래서 주체의 말로 환원된 자기 고통을 순종, 겸손, 체념, 인내, 탄식의 표현으로 대신하게 되었다. 그 순종, 겸손, 체념, 인내, 탄식 이면에는 진정 하고 싶었던 말들이 숨어 있다. 그 숨은 말을 토해내고 싶은 욕망이 자리한다.³⁴⁾ 바로 이 침묵 혹은 생략, 탄식을 대신하여 <홍글소리>속 화자는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단절과 고립의 사건들을 의미화한다.

33) 김성례, 『여성의 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제발견을 위하여』,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쓰기: 또하나의 문화 제 9호 또하나의문화, 1992, 115-137면.

34)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 구연에 나타난 말하기방식과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이대박 사논문, 2006, 147면.

울어매는 날키울때/ 금만남만 예우드만/ 어매어매 날날라말고/ 칠월삼베
나 한필더났으믄/ 몽당치매를 못미들걸/ 한살두살 묵을때는/ نوم안줄 듯이
하드마는/ 열에다섯이묵어논께/ 넘주자고공사허네/ 못살것네 못살것네/ 열
에다섯만난가장/ 백년원수를 만나갓고/ 날베려라 날베려라/ 대쪽같이 곱은
길에/ 살대쫄듯 니나나감세³⁵⁾

위 노래에서 화자가 재현하는 의미있는 사건들은 다음과 같은 서사적
전개로 나눌 수 있다.

- 1) **결혼하기 전 친정에서의 어린 시절은 지낼만 했다**(울어매는 날키울때/
금만남만 예우드만.... 한살 두 살 묵을때는/ نوم안줄듯이하드마는)
- 2) **열다섯에 시집을 보냈다**(열에다섯이묵어논께/ 넘주자고공사허네)
- 3) **원하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불행했다**(못살것네 못살것네/ 열에다섯만
난가장/ 백년원수를 만나갓고)
- 4) **현재 나는 불행하다**(날베려라 날베려라/ 대쪽같이 곱은길에/ 살대쫄듯
니나나감세)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전적 사건을 읽어낼 수 있다.

노래는 날 키울 때, 한두 살 먹을 때, 열다섯 살 등 구체적으로 생의 순
간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지낼 만 했던 친정에서의 삶과 백년 원수를
만나 시작된 불행한 삶은 양분하고 있다. 날 키울 때, 한두 살 먹을 때, 열
다섯 살로 구체되는 시간인식과 함께 이를 통해 파편적으로 전달되는 사
건을 통해 화자가 의미화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울어매는 날키울때/ 금만남만 예우드만’ 극진히 자신을 길렀던 친정어
머니가 ‘한살두살 묵을때는/ نوم안줄듯이하드마는’ 탄식으로 의미화하고
있는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이 탄식으로 대신하는 생략과 침묵의 말을

35) 김혜정(2003), 앞의 논문 101면.

통해 살아온 시간을 반추하고 그것을 생생하게 혹은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지금 나의 정황을 짐작하게 만든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남’이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은 친정 식구가 아닌 남편 혹은 시집식구를 지칭한다. 노래 속에서는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적대자를 원수같은 남편이라 말하고 있다. 화자가 단절과 소외를 경험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남’에게 넘겨진 바로 그 순간이다. 내 어머니로부터 남에게 넘겨지는 그 순간 어머니를 향했던 정서적 의존감은 상실되고 말았다. 대신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과의 조우, 두려움, 소외의식이 찾아온다. <홍글소리>에는 바로 이렇게 친정어머니와 분리된 이후 찾아온 두려움과 소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화자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시간은 유년시절일 것이다. 그러나 유년 시절은 돌아갈 수 없는 시간, 복원될 수 없는 시간이다. 사라진 유년, 친정어머니를 의지하여 그와 늘 소통할 수 있던 시절은 사라져 버렸다. 이러한 소외의식은 시집살이 노래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시집와사 시집살이 험적은는 / 나도부모 자식으로 / 귀헌자식이 되었는데
/ 시집을 와서보니
밥을히먹을종도 모르고 / 물도지릴종도 모른다³⁶⁾

우리 부모 나를 낳여 / 곱기 곱기 길러가주 / 념의관문에 시집을 보냐 /
인심살이가 소박하던강
은가락지 끼던손에 / 호맹이꼭지가 웬일이고 / 꽃땡이라 신던발에 / 화려
기짚신이 웬일이고
금봉채를 하던머리 / 낫비녀가 웬일이나 / 비단처마 감던 허리 / 삼베처머
가 웬일인고³⁷⁾

36) 『한국구비문학대계』 5-7, 239-240면.

유년시절은 친정어머니에게 의지할 수 있었던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절이었다고 노래는 말하고 있다. 38) 행복했던 불행했던 딸로 살았던 시절은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남에게 넘겨지는 그 순간 화자는 의지했던 그 친정어머니와 분리되고 만다. 친정어머니와 단절된 여성은 시집이라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가족관계에 편입되었던 것이다. 이는 더 할 수 없는 두려움과 외로움, 단절감을 경험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39) 정서적 의존의식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단절되고 분리되었던 사건은 이후 직면하는 시집살이를 더욱 가혹하고 혹독한 경험으로 여겨지게 만들었을 지도 모른다.

3-3.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의식

친정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의존의식이 단절되면서 낯선 타자에서의 시집살이는 더욱 힘들고 가혹한 경험이 되고 말았다. 나 혼자만 남인 그곳에서 딸로 다 할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야 했던 화자는 아래와 같이 살아온 날들을 떠올리며 항변하고 탄식한다.

‘나는 못살겠네/ 어매어매 우리어매/ 날 데려가시오/ 시상에도 못살겠고/
날만 좋디로 데려를 가시오’

‘암만해도 못살겠네/ 밤보따리 옆구리에 찌고/ 질로질로 나설라네’

‘날베려라 날베려라/ 대쪽같이 끈은길에/ 살대쫄듯 나나나감세’

‘살다살다 정못살른/ 깡고깡고 머리를 깡고/ 중에행실이나 나가볼게’

37) 『한국구비문학대계』 7-4, 349-356면.

38) 이정아,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인식』, 『한국고전연구』 1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6, 213-239면.

39) 시집와서 시집식구가 어려워져 얼굴도 들지 못했다, 남편 얼굴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하는 여성들의 생애담에서 이러한 감정들을 얼마든지 유추해낼 수 있다.

‘못살겠으니 좋은 세상을 데려 가 달라, 아무리 생각해도 못살겠으니 보따리를 끼고 나서야겠다, 차라리 날 버려라 나가겠다, 머리 깎고 중이 되어 나가겠다’ 등 현실에 대한 저항감은 강렬하다. 벗어나고 싶고 벗어나야 할 현실에 대한 강렬한 자의식이 포착된다. 이러한 의식은 <중이 된 며느리>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불과같이 나는밥에/ 논과같이 지심밥에/ 장차고 지는밥에/ 악복악복 매고
/ 집이라고 들어가니/
엇저녁묵든 식은밥을 나를주고/ 엇저녁묵든 된장국을/ 종지에 담어 나를
주네/ 에라요건 이러서는 못쓰겠다/ 열두두푼 잡은치매/ 한쪽뜯어 바랑쥬고
/ 두푼뜯어서 꼬까쥬고/ 절로절로 올라가니 40)

뜨거운 태양별 아래 밥을 매고 집으로 들어가는 어제 저녁에 먹었던 식은 밥을 나에게 던져주는 시집식구들에 반발하며 에라 요건 이래서는 못쓰겠다면 치매를 뜯어 바랑 쥬고 고깔 쥬어 나가는 며느리의 모습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시집식구의 횡포에 대한 강력한 반발과 저항의식을 잘 보여준다.

<홍글소리>도 자주 이런 강력한 저항과 항변을 담아내고 있다. 도저치 참아내기 힘든 현재의 삶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이미 지나온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지만 현재 지금의 삶으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좋은 곳, 도망하고 싶은 어떤 공간, 중이 되어서 나가겠다’ 말한다.

불행한 현실에서 벗어나겠다고 의지에는 인간답게 살겠다는 자의식이 내재한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삶의 횡포로부터 벗

40) 『한국구비문학대계』, 6-9, 634-636면.

어나야 한다는 자의식이 자리한다. 그 자의식은 실천적 행위를 촉구하기도 하고, 벗어나고 싶다는 강력한 항변으로 대신 터져 나오기도 한다.

여성 생애담의 마무리가 ‘그 어려운 시절을 그렇게 살았다, 요즘은 그 누구도 그렇게 못 산다’ 등의 영웅적 회고담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홍글소리>는 달라져야 할 현실, 바뀌어야 할 현실, 벗어나야 할 현실에 대해 아주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지나온 시절을 회고하며 ‘나아나이라면 절대 살지 못했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시집살이 체험담의 영웅적 회고와는 달리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나의 삶, 나의 갈등을 말하고 있다.⁴¹⁾

4. <홍글소리>의 자기탐색적 태도와 그 의미

<홍글소리>에는 여성의 삶과 의식이 함축되어 있다. 살아온 시절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탄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침묵, 망설임, 반복의 형식으로 재현되는 탄식으로 자기부정의 말들을 쏟아낸다. 그러나 이 자기부정의 말 이면에는 자기긍정의 욕망이 담겨 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던 어린 시절을 기억해내는 화자의 의식에는 정서적 위로와 소통이 보장되는 따뜻한 가족관계와 정서적 연대감이 간절한 바람으로 담겨 있다. 친정어머니를 의지하며 그에게 그 어떤 말도 털어놓을 수 있었던 시절은 결혼과 함께 사라졌다. 원치 않았던 결혼 때문에 태어남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만큼 두렵고 외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그 외롭고 무서웠던 기억들은 단편화된 기억으로 파편화되어 침묵 혹은

41) 이정아, 『시집살이 말하기에 나타난 균열된 여성의식: 시집살이 체험담과 시집살이 노래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3집 1호, 한국여성연구원, 2006.6, 202면.

생략, 망설임의 방식으로 탄식을 자아낼 뿐이다. 이 탄식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만난다. 그 만남은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할 날들에 대한 의식을 되살려 놓는다. 그래서 원망과 탄식으로 점철되던 <홍글소리>의 뉘뜨리는 마지막 부분에서 강력한 항변 의지를 수반한 외침으로 돌변하기도 한다.

<홍글소리>는 정서적으로 친정어머니를 의지했던 ‘딸’ 시절을 그리워하는 여성이 단절되고 고립된 공간에서 목 놓아 부르는 서글픈 노래처럼 보인다. 노래 속에는 원치 않았던 운명적인 삶의 굴곡에서 살아야 했던 상처의 순간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노래는 슬픔만을 전하지는 않는다. 서글프지만 회복해야 할 나, 존엄한 나의 존재가 역설적으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홍글소리>의 탄식은 현재진행형이다. 원망, 불만, 탄식으로 이어지는 자기부정의 말들은 회복해야 할 자존감에 대한 역설적 표현이다.

바로 그 탄식의 행간 사이에 숨은 이 의지와 열망을 읽어내는 과정에서 <홍글소리>가 자기 탐색적 텍스트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까닭 없이 모진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여성들은 누구나 척박한 현실을 벗어나기를 꿈꾸고 갈망했다. <홍글소리>에 나타난 탄식의 말들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기 탐색의 의지다.

<홍글소리>의 탄식을 통해 노정된 자기탐색에는 자존적 욕망이 자리한다. 그래서 <홍글소리>는 신세한탄의 노래, 체념의 노래라고만 볼 것이 아니다. <홍글소리>에 나타난 탄식에는 치유 받아야 할 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나에 대한 의식이 전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글소리>에서 나타난 탄식은 단순한 신세한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탄식이라는 방식을 통해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 보고 현재 자신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침묵, 생략, 반복

등의 여성적 말하기의 특징을 노정한다. 그러면서 역설적인 화법으로 회복하고 싶은 자기의 삶을 전달하고 있다. 이 탄식을 통해 딸로서 살았던 유년시절에 대한 행복한 기억을 짐작할 수 있다. 친정어머니와의 정서적 소통이이야말로 여성들이 회복하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사실도 유추해낼 수 있다. 결혼 이후 친정어머니와 단절되어 극심한 소외감을 맛보며 살았던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 그대로 딱딱한 것이었다. 낯선 시집에서 못한 남편과 모진 삶을 살아온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그 굴레로부터의 탈주를 꿈꾸고 있다.

<홍글소리>는 사적인 노래로 혼자 부르는 노래였지만 연대의식이 보장되는 폐쇄적인 집단에서는 함께 부르기도 했다.⁴²⁾ 이러한 노래 연행의 상황을 생각할 때 이 노래가 함의하고 있는 자기탐색의 과정은 개인적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삶의 굴레로부터의 탈주를 꿈꾸는 여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낯선 타지, 불편한 시집에 살면서 여성들은 <홍글소리>를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를 조망하고 있었다. 그 미래가 해피엔딩이든 그렇지 못하든 분명한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아니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이러한 자기 삶에 대한 회고와 탐색을 위한 무의식적 갈망, 바로 이것이 <홍글소리>를 부르게 했던 중요한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홍글소리>는 자기탐색을 통해 자기치유를 모색한 노래- 그것이 의식적이었던 혹은 그렇지 않았든 간에-라고 할 수 있다. 가슴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감정적 말들의 근원을 탐색하고 그 탐색을 통해 내가 앞으로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모

42) 오복순은 길쌈 짜고 베 짜고 7-8명이 모여 앉아서 <홍글소리>를 많이 불렀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아, 『시집살이 말하기에 나타난 균열된 여성 의식: 시집살이 체험담과 시집살이 노래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3집 1호, 한국여성연구원, 2006.6, 193면.

색하게 만든 그런 노래 말이다. 바로 그 지향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고 고난에 대응해나갈 수 있었다.⁴³⁾

참고문헌

- 장진옥, 『여성민요 창자 정영엽 연구』, 『구비문학연구』 7, 한국구비문학회, 1998, 187-202면.
- 김성래, 『여성의 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제발견을 위하여』, 여자로 말하기 몸으로 글 쓰기: 또하나의 문화 제9호 또하나의문화, 1992, 115-137면.
- 김정경, 『여성 생애담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화 방식 연구』,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회, 2011, 181-124면.
- 김종근, 『가족사 서사로서 시집살이담의 성격과 의미』,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회, 2011, 215-253면.
- 김혜정, 『전남지역 흥글소리의 음악적 구조와 의미』, 『한국음악연구』 제24집, 79-105면.
- 김혜정, 『여성민요의 음악적 존재 양상과 전승원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165면.
- 김혜련, 『서서 담론으로서의 가족애』, 『한국여성철학』 제7권, 2007, 59-87면
- 김혜련, 『감성서사에 기반한 여성 주체 형상』, 『미학』 제 42집, 2005년 6월, 1-29면.
- 박경열, 『시집살이담의 갈등양상과 갈등의 수용방식을 통해 본 시집살이의 의미』,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회, 2011, 105-154면.
- 박혜숙, 『여성과 자기서사』, 『한국여성문학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 2008, 217-240면.
-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43) 이러한 <흥글소리>의 문학적 특징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대응하는 방식과 도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 이는 자전적 혹은 자기 생애적 의미를 함의한 문학텍스트로서 <흥글소리>가 가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다른 지면을 통해 다루기로 한다.

239-271면.

- 서영숙, 『시집살이 이야기와 시집살이 노래의 비교』,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회, 2011, 73-103면.
- 서영숙, 『충북 여성 민요의 정서 표현 양상과 현실의식』, 『한국민요학』 제22집, 한국민요학회, 2008, 165-198면.
- 신동흔, 『시집살이담 담화적 특성과 의의』,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회, 2011, 1-36면.
- 유목화, 『여성민요에 나타난 감성의 발현양상과 치유방식』, 『공연문화연구』 제20집, 2010, 161-194면.
- 윤택립, 『여성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회, 2011, 145-180면.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에 관한 일고』, 『한국고전문학연구』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65-292면.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와 말하기 욕망』, 혜안, 2010, 1-348면.
- 이정아, 『어사옹에 나타난 탄식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321-350면.
- 이정아,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인식』, 『한국고전연구』 15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213-239면.
- 이정아, 『시집살이 말하기에 나타난 균열된 여성의식: 시집살이 체험담과 시집살이 노래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3집 1호, 한국여성연구원, 2006, 189-219면.
- 천혜숙, 『농촌여성 생애담의 주제와 생애인식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227-267면.
- 천혜숙, 『농촌여성 생애담의 문학담론적 특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238-324면.
- 최원오, 『여성생애담의 이야기화 과정, 그 가능성과 한계』, 『구비문학연구』 32, 한국구비문학회, 2011, 37-71면.
- 한국문화방송, 『한국민요대전 전라남도해설집』, 1-606면.

ABSTRACT

A Study on *Honggeulsori*:
focusing on self-exploratory attitude represented through lamentation

Lee, Jung-A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spects of lamentation in *Honggeulsori* in an attempt to shed light on this song's female consciousness – identity as a daughter, a sense of dependence, memory from childhood, a sense of alienation and self-consciousness (pursuing getting out of unhappy life). It's ultimately meant to define the self-exploratory attitude of this song and its meaning.

This song's repeated lamentation was rooted in lack of emotional communication with parents. That resulted from the young commoner of the lower classes' unwanted marriage under the patriarchal system (being separated from her mother and going to the strange husband's home). She was emotionally dependent on her mother in childhood, and the incident of marriage forced her to undergo isolation and cutoff. She got to have a sense of alienation in the isolated space, and she got to have a strong self-consciousness and eventually wanted to get out of such a tough reality at the same time.

Honggeulsori repeatedly described and reinforced the words of lamentation and thereby represented that she should pursue her own real life and overcome the reality. This song urged her to lead her own life by emphasizing her lamentation. This song's female consciousness could be defined as a self-exploratory attitude, and this self-exploratory attitude could be said as self-awakening of what she should pursue in her life and shows her desire for healing and self-recovery.

Key Words *Honggeulsori*, female consciousness, grief about one's misfortune, lamentation, female text, a sense of dependence, a sense of alienation, self-consciousness, self-denial, self-exploration, self-exploratory attitude, *Sjibsal* Songs, *Eosayong*, *Gyubangasa*.

논문투고일 : 2012. 04. 14
심사완료일 : 2012. 05. 29
게재확정일 : 2012. 06. 05